

외국인직접투자 유형별 결정요인 분석

이승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
무역투자정책팀 부연구위원
srlee@kiep.go.kr

강준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
무역투자정책팀 전문연구원
jgkang@kiep.go.kr

김혁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
무역투자정책팀 전문연구원
hhkim@kiep.go.kr

박지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
다자통상팀 전문연구원
jhpark@kiep.go.kr

이준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
무역투자정책팀 전문연구원
jwlee2@kiep.go.kr

이주미 KOTRA 통상전략팀 전문위원
leejm@kotra.or.kr



1. 연구의 배경 및 목적

- 본 보고서는 유형별 외국인직접투자(Foreign Direct Investment)의 결정요인을 기간별·경제발전단계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 연구임.
 - 세계경제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모든 국가들은 자국의 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FDI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.
 - 각국의 적극적인 FDI 유치정책에 힘입어 세계 FDI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서 개발도상국의 FDI 비중과 M&A형 투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.
 -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FDI 유치정책을 통해 FDI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중화권 국가로부터 M&A형 투자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.
 - 최근 국내 FDI 규모는 누적 신고금액과 도착금액 모두 사상 최대실적을 보였으나 다른 OECD 국가들과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들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며 투자유치 잠재력에 비해 투자유치 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됨.
- FDI 결정요인을 분석한 기존 연구는 다수 존재하나, 본 보고서와 같이 유형별 FDI 결정요인을 기간별·경제발전단계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음.
 - 대부분 FDI 결정요인 관련 선행연구는 FDI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적 특징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기간별·유형별·경제발전단계별로 구분하여 특징적인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현재까지 많지 않은 상태임.
 - 본 연구는 경제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요인 외에 사회·정치·제도적 특징을 나타내는 요인들이 유형별 FDI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자 함.
- 본 보고서는 국내외 선행연구 조사와 실증분석을 통해 국내외 세계 유형별 FDI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평가함.
 - 현재까지 FDI 결정요인을 분석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경제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와 비경제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를 파악하고 각 변수를 중심으로 FDI 관련 연구들이 어떻게 진화되었는지 검토함.
 - 특히 우리나라 산업의 외국인투자 장벽을 조사·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산업별 투자개방지수를 도출하여 산업의 외국인투자 규제완화정도가 국내 FDI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함.

2. 조사 및 분석 결과

가. 각국의 적극적인 FDI 유치정책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FDI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임.

- 세계 FDI는 1980년대 이전까지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제한 또는 규제가 일반적이었으나 투자진입장벽 완화와 투자인센티브 제공 등의 FDI 유치정책에 힘입어 FDI 규모는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.
 - 세계 FDI의 추세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FDI 유입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에는 전 세계 FDI 유입의 55%를 차지하였으며, M&A형 FDI는 투자금액 측면에서 그린필드형 FDI보다 규모는 작으나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.
-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1980년대 이전까지는 차관중심의 경제발전전략에 중점을 둔 반면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FDI 유치정책으로 인해 FDI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.
 - 외환위기 이후 경제의 조기회복 도모를 위해 적대적 M&A를 허용하고 M&A와 관련된 투자장벽을 대부분 철폐하는 등의 적극적 FDI 자유화 정책을 시행한 결과 1997년부터 M&A형 FDI를 중심으로 투자 규모가 증가함.

나. 국가 수준의 FDI와 국내 산업 수준의 FDI는 각각 유형별 · 기간별 · 경제발전단계별로 다른 결정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.

- 세계 FDI를 투자유형과 경제발전단계별로 구분하여 결정요인을 실증 분석한 결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유형별 FDI 결정요인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남.
 - 선진국의 경우 1인당 GDP만이 그린필드형 FDI에 유의한 효과를 보였으며 인플레이션과 실질환율 등이 M&A형 FDI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요인들이 선진국의 FDI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됨.
 - 개발도상국의 경우 GDP 증가율과 인플레이션, 국가위험도가 그린필드형 FDI에 유의한 효과를 보였으며 실질환율과 금융시장발전정도, 국가위험도 등이 M&A형 FDI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인 특징과 비경제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FDI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됨.
- 국내 산업별 FDI를 투자유형과 기간별로 구분하여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한 결과 분석 기간에 따라 유형별 FDI 결정요인이 다른 것으로 나타남.
 - 그린필드형 FDI의 경우 FDI가 증가하기 시작한 초기기간(1995~2003년)에는 산업의 임금수준과

투자 규제완화정도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기간(2006~13년)에는 투자 규제완화정도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됨.

- M&A형 FDI의 경우 초기기간에는 산업의 R&D 투자와 투자 규제완화정도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기간에는 노사분규 건수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 규제완화정도가 초기에 큰 영향을 미쳤던 반면 최근에는 투자환경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됨.

3. 정책 제언

가. 산업별 투자 장벽 규제 완화

- 국내 그린필드형 및 M&A형 FDI 모두에서 FDI 개방지수가 투자 유입을 증가시킨다는 실증분석 결과는 투자개방정책이 FDI 증대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함.
 - 향후 FDI 확대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개방지수가 낮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 - 국내 FDI 관련 법·제도가 많이 개선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FDI 유치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‘규제 프리존’과 같이 산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할 필요가 있음.
 -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많은 국내 FDI 유치제도가 변화되는 국내 정책 목표에 부합될 수 있도록 미흡한 점을 개선해야 할 것임.

나. 금융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제도·정책적 요인들의 경쟁력 강화

- 우리나라가 포함된 선진국들의 M&A형 FDI가 금융시장발달정도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는다는 실증분석 결과는 금융시장의 발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함.
 - 세계경제포럼에서 발간되는 금융발전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금융시스템의 발전을 가져오는 기반이 취약하며 환율안정 및 시스템리스크 측면과 상업금융 부문의 접근성에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.
 - 향후 M&A형 FDI를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제도·정책·요인 측면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개방과 금융회사 육성 등을 통한 금융시장 조성 및 활성화에 노력해야 할 것임.

다. 투자대상국으로서의 매력도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투자 환경을 개선

- 국내 산업 내 노사분규 건수의 감소가 그린필드형 FDI를 증가시킨다는 실증분석 결과는 투자 환경 개선이 FDI 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함.
 - 최근 외국인투자 상담에서 노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처리 중 노무인사에 대한 내용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사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.